

## “기억하라”

(신명기 8:1-10)

신명기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돌보셨는지 기억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때문에 신명기에는 한 가지 선명한 주제가 거듭 반복됩니다. **너희는 오늘 여호와를 기억하라.** 먼지 묻은 시간,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동시에 언약 공동체임을 깨우쳐 줍니다. 말씀에 기억하라, remember 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사십 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2a)**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사십 년의 생활은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웬수 같은 시간, 아예 기억에서 싹 지우고 싶은 지긋지긋한 ‘평생 웬수’ 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모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v.2b)**

시험의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비로서 옥석이 나뉘어 집니다. 정금은 반드시 뜨거운 풀무불의 연단을 거쳐야 합니다. 연단이 없으면 가짜/싸구려 금입니다. 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자꾸 광야 가운데 불평하는데,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르고 일단 불평부터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연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NIRV 성경을 보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pride, 자기 잘남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 pride 를 갖게 됩니까? ‘나는 이 정도야, 적어도 너와는 출신성분부터 달라.’ 학벌, 재산, 인맥 내가 가진 것 모두 다 끌어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pride 입니다. 한때 공부 좀 했다고 자랑하면 안됩니다. 자식 자랑, 건강 자랑, 물질 자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손에 쥐어진 것들로 자랑삼지만, 더 잘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만나면 바로 꼬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는 바로 이 '나 잘남'의 pride 를 내려놓는 곳입니다. 만약 거친 광야를 지나고, 또 여전히 아직도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아직도 이 pride 가 꿈틀 꿈틀 남아 있다면, 시험과 연단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굶주려 주셔도 나 잘남에 도취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가까이 오셔도, 내 눈이 잘남의 비늘로 가득 덮여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두 눈 멀쩡히 뜬 영적 장님이 됩니다. 아무리 목청 높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귀 안에 교만의 귓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일부러 골탕 먹이시려고, 광야에 내던져 놓고, 우리를 마냥 굶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V.3, 우리말 성경)**

이 말씀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40 일간 금식한 후,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탄의 시험을 받은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4)** 신명기와 복음서, 모두 어찌 보면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짹짹 굶는 사람에게 영적인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30b-31)** 사실 이 말씀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 뜻은 인간은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힘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쳐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마태복음 6:33-34)**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인생의 결핍과 하나님의 풍요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풍요 같지만 결핍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풍요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굽주리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들의 알팍한 pride 를 몰아내고, 하나님께 인생의 닻을 내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계절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됩니다.

모세는 40 일 동안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높은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내려오는 영성입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40 년의 광야가 눈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내려온 주님 앞에는 골고다의 언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 앞에도 순교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현대교인들은 초대교회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편안하게 듣기에만 즐거운 소리,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이나 하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하십니다. **너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억하는 종교' 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광야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굽주리게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pride 를 걷어내고, 그 빈 자리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광야는 배고프고, 목마른 광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 눈에 보이는 힘든 상황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과 잘남으로 가득 찬 상태가 바로 광야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플 때, 내가 굽주려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기만해도 말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배부르다고 느낄 때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경고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며, 여러분에게 좋은 땅을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요. (신명기 8:10-11a, 쉬운 성경)**

말씀을 배불리 먹을 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광야를 기억 해야 합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이 일대일로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변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광야는 적막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광야는 우리들의 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 펴신 팔을 느낄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맘껏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셨습니다. 이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 [속회자료]

**찬 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393 장 오 신실하신 주)

**대표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말씀읽기** 신명기 8:1-10 절을 읽습니다.

**말씀묵상** 본문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0 분)

**말씀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말씀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 이내)

1. 우리를 낮추시고, 굶기시는 광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2. 허락해 주신 광야(Desert)가 세속적인 달콤한 후식(Dessert)으로 변해 버리지 않으려면 언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3. 최근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4. 사순절 동안 실천할 한 가지 영적훈련을 사랑하는 속회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증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찬 송**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391 장 오 놀라운 구세주)

**주기도문**